

1. 2002년9.8 국가직7급 국어

【문 1】 ‘교각살우(矯角殺牛)’와 비슷한 뜻은?

- 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.
- ②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랴.
- ③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.
- ④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.

【문 2】 다음에 들어갈 속담 중 맞는 것은?

이 첫인상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사람이 워낙 작고 오종종하고 졸토뱅이로 생겼으면 남에게 한 손 접히는 것이 열이면 열 번이다. “제비는 작아도 강남만 잘 간다.”라든지 “_____”라는 속담이 통하기 전에 “산이 커야 골이 깊지” 하는 선입견을 주기 쉽다.

- ① 산이 우니 돌이 운다. ②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.
- ③ 작은 고추가 맵다. ④ 인물 좋으면 천하일색 양귀비

【문 3】 다음 중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은?

- ① 버스, 터미널, 휴게실, 텔레비전 프로그램 ② Busan, Jongno, Seongnam
- ③ 먹거리, 앓았습 ④ 베품, 초점, 맞추었습니다

【문 4】 밑줄 친 문장을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바르게 고친 것은?

저희는 사후(事後) 수습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여러분의 심려를 씻어 드릴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.

- 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
- ②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
- ③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
- ④ 사고 원인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

【문 5】 다음 고딕체로 표시된 부분 중 언어 예절에 적합한 것은?

- ① 남편의 누이가 왔기에 나는 “고모 어서 오세요.” 하고 반갑게 맞았다.
- ② 나는 오늘 약속 장소에 선친 생신이어서 가지 못했다.
- ③ 사장이 김 과장에게 “자당께서는 안녕하신가?” 라고 물었다.
- ④ 선생님께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 저는 “김자 동자 수자”라고 하였습니다.

【문 6】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(女王)과 같은 달이지마는,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.

- ① 달의 특징을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었다.
- ② 그믐달과 보름달의 특성을 대비해서 표현하였다.
- ③ 직유법이 사용되었다.
- ④ 은유법이 사용되었다.

【문 7】 다음 시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심미적 가치는?

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.
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.
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
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.
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
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!
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!
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!

① 숭고미 ② 해학미 ③ 우아미 ④ 비장미

【문 8】 다음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기법은?

나 보기가 역겨워
 가실 때에는
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.

- ① 상징 ② 역설
 ③ 은유 ④ 대구

【문 9】 한자어의 독음과 뜻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?

- ① 眞摯(진집) : 참되고 착실한 마음
 ② 造詣(조예) : 학문에 뜻이 깊고 예술의 수준이 높음
 ③ 苛斂誅求(가검주구) : 가혹하게 징수함
 ④ 弄璋之慶(농장지경) : 딸을 낳은 기쁨

【문 10】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잘못 바꾼 것은?

- ① 가가호호(家家戶戶) : 집집마다
 ② 하자(瑕疵) : 흠
 ③ 파행(跛行) : 순조로움
 ④ 시비(是非) : 잘잘못

【문 11】 표기가 바르게 된 것끼리 나열된 것은?

- ① 육개장, 찌개, 돌아가시오
 ② 어께, 어췌던, 짜집기
 ③ 웬지, 남녀, 으스대다
 ④ 통털어, 복불복, 전세방

【문 12】 어미의 된소리 표기가 맞지 않는 것은?

- ① 나도 같이 갈께
 ② 우리도 함께 갈까?
 ③ 나도 같이 갑니까?
 ④ 나라고 못 갈쏘냐?

【문 13】 다음 중 파생어는 몇개인가?

건널목, 검불다, 바가지, 부나비, 마무리, 지붕, 핏고추

- ① 한 개 ② 두 개 ③ 세 개 ④ 네 개

【문 14】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?

- ①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이 계시다.

- ②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자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신다.
- ③ 아버님 그이가 출근하셨습니다.
- ④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쭙셨던 문제 풀었습니다.

【문 15】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은?

- ①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.
- ② 수출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.
- ③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.
- ④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.

【문 16】 다음 중 맞춤법에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은?

- ① 인제 채비가 다 되어서 모레면 떠날까 한데요.
- ② 어차피 늦었으니 금세 설거지를 마치는 대로 갑시다.
- ③ 개는 서둘거나 망서림 없이 깎듯이 예의를 차렸어.
- ④ 흰칠한 허위대에 넓직한 얼굴의 남자가 찾아왔다.

【문 17】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나랏말싸미 中 國 國 到 달아, 文 明 字 號 와 로 서르 스몓디 아니 훌쩍 이런 전츠로 어린 百 姓 姓 性 이 니르고져 훌 배 이셔도, 므츨내 제쁘들 시러 퍼디 몫흠 노미 하니라. 내 이를 爲 嬴 亨 야 어엿비 너겨, 새로 스믈여덟 字 號 를 밍그노니, 사름 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·메 便 便 安 安 한 科 亨 고져 훌 썩르미니라.

- ①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해서 1445년 반포되었다.
- ② 나랏말싸미가 바른 표기다.
- ③ ‘어린’은 ‘愚’, ‘어엿비’는 ‘憫’의 뜻이다.
- ④ ‘전츠’는 ‘故’, ‘시러’는 ‘載’, ‘하니라’는 ‘多’의 뜻이다.

【문 18】 다음 글의 주제는?

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하니 뵈썩, 곶 도쿄 여름 하느니.
식미 기픈 므른 그르매 아니 그츨썩,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.

- ① 조선의 영원한 발전 ② 조선 건국의 정당성
- ③ 문화의 우수성 ④ 이성계의 용맹성

【문 19】 다음 문학 장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?

열치매
나타난 달이
흰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
새파란 나리에
기랑의 모습이 있어라
일로 나리 조약에
낭의 지니시던
마음이 끝을 좇누아저
아아, 갓가지 높아
서리 모르시울 화반이여.

- ① 5구체, 7구체, 10구체이다.
- ② 불교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다.
- ③ 3단 구성으로 시조와 형식이 유사하다.

④ 「도이장가」와 동일한 계열이다.

【문 20】 ‘지청구하다’의 뜻은?

- ① 까닭 없이 남을 원망함.
- ② 괜히 두려워하다.
- ③ 의상값 청구.
- ④ 성품이 곱고 부드럽다.

<정답>

1	2	3	4	5	6	7	8	9	10
3	3	2	2	3	4	4	2	2	3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1	1	4	2	3	2	3	1	1	1

전용대 해설>

1. 정답 ③

해설 ‘교각살우(矯角殺牛)’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말로,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.

2. 정답 ③

해설 빈 칸 바로 앞의 “제비는 작아도 강남만 잘 간다.”와 유사한 속담을 고르라는 문제이다.

3. 정답 ②

해설 ① 텔레비전 → 텔레비전

③ 앉았음 → 앉았음 *명사형 어미는 ‘-(으)ㄴ’이다

④ 베품 → 베풀 *베풀+ㄴ(명사형 어미)

4. 정답 ②

해설 접속 조사 ‘과’로 두 개의 명사구를 이어서 서술어 ‘마련하여’의 목적어로 쓴 부분인데, 흔히들 잘못 쓰는 표현이다. 여기에서는 앞뒤 구 둘 다 하나의 서술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앞 명사구를 ‘목적어 - 서술어’의 구조를 갖춘 이어진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.

5. 정답 ③

해설 ① ‘형님’으로 써야 한다. ‘고모’는 ‘나’의 자식이 쓰는 말이다.

② ‘선친’은 돌아가신 본인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. 살아 계신 본인의 아버지라는 뜻을 띤 ‘가친(家親), 엄친(嚴 親)’ 등으로 고쳐야 한다.

④ 성(姓)을 생략하고 ‘동자 수자’ 해야 맞는 표현이다.

6. 정답 ④

해설 나도항의 수필 ‘그믐달’의 일부이다. 보름달과 그믐달을 각각 원관념으로 하고 여왕과 공주를 보조 관념으로 하여 두달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. 연결어로 ‘같은’을 써서 직유법을 사용했다. ‘대비’라는 말은 대상의 차이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.